

눈팅만 하다가 써보는 운동권 시절 이야기 (1)- 프롤로그

프로눈팅러

안녕! 나는 아마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을거야.

연도를 밝히면 너무 아저씨같아서 안밝힐게.ㅌㅌ.ㅌㅌ

내가 신입생이던 시절엔 여고생들이 HOT에 미쳐있었고
복학하고 나서는 버디버디와 미니홈피가 유행했어 ㅎㅎ
대충 어느시기인지 감이오지?

그땐 지금 대학가보다 운동권이 강했어...ㅋ

물론 그때도 386 선배들때보단 훨씬 약해져있던 상태였지

무튼 난 NL이 학생회 동아리 다해먹던 서울 강북권 동쪽의 한 학교에서
소수 PD와 활동을 했어

처음엔 과동아리로 했다가 나중엔 정과에도 가입했지

그때도 지금하고 활동 패턴은 비슷했어

학습과 실천!

학습은 주로 마르크스와 그람시 알튀세르 루카치 책으로 많이했어
(레닌은 거의 안했어)

실천은 4.30과 5.1에 범좌파 청년단위 다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가고,

평소엔 노동집회, 교육개혁/등록금 인상 규탄 집회, 농정 개방 반대 시위 주로 다녔는데 NL 친구들과 맨날 마주쳤어 ..

아 5.18 광주는 NL하고 따로갔어 ㅋㅋㅋ

앞으로 생각날때마다 와서 그때 이야기를 써볼게 ㅋㅋ

참고로 난 골수운동권과 패션운동권의 중간 어디쯤에서 방황하는
잉여였어 .. ㅋㅋㅋ